



주간통일정세 2011-35(2011.08.22~08.28)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5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35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총리, 평양-남포 구도로 개건공사 현지 요해(8/22, 조선중앙통신)**
 - 최영립 북한 내각 총리가 평양-남포 간 구도로 개건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회의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전함.
 - 최 총리는 공사장을 돌아보고 현지에서 관계부처 일꾼협의회를 진행했으며 협의회에서는 공사를 단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끝내는 문제와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러 관련기사]

- **김정일, 동부 시베리아 울란우데 도착(8/23, 연합뉴스)**
 -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3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동부 시베리아 도시 울란우데에 도착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이하 현지시각)께 부랴티야 자치공화국 주도인 울란우데 기차역에 도착해 바체슬라프 나고비친 공화국 대통령과 마트베이 게르세비치 공화국 의회 의장, 겐나디 아이다예프 울란우데 시장 등의 영접을 받음.
 - 김 위원장은 약 20분 동안 진행된 영접 행사가 끝난 뒤 특별열차에 싣고 온 메르세데스 승용차를 타고 현지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울란우데에서 서북쪽으로 약 170km 정도 떨어진 바이칼호 동쪽 호숫가의 '투르카 마을'을 찾았는데, 바이칼로 흘러들어 가는 작은 강가에 있는 투르카 마을은 현재 관광 중심 경제특구로 개발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울란우데 시로 돌아온 김 위원장은 오후 6시께 시 외곽에 있는 항공기 제작공장 '아비아 자보드'를 방문했는데, 아비아 자보드는 소련 시절인 1930년대 말부터 수호이와 미그기 등의 전투기와 Mi-8, Mi-171 등의 헬기를 함께 생산해온 유명 항공기 제작 공장임.
 - 한편 김 위원장은 항공기 제작 공장 방문을 마치고 울란우데 역에 세워진 특별열차로 돌아가 하룻밤을 보낸 뒤 24일 오전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러 대통령 "北, 6자회담 무조건 재개 합의"(8/24, 연합뉴스)**
 - 24일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 도시 울란우데에서 열린 북한-러시아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에 합의했다고 나탈리야 티마코바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이 밝혔다



- 티마코바는 "김 위원장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6자 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밝혔다"며 "그러면 6자 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핵물질 생산 및 핵실험을 잠정중단(모라토리엄)할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 한편,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과 허심탄회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했다"면서 북한이 자국을 거쳐 남한까지 이어지는 천연가스 수송관을 지지함으로써 가스관 건설에 합의할 수도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북한을 거쳐 남한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위한 3자 위원회 발족에 합의했다고 부연하면서 "가스 협력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 특히 북한을 거쳐 남한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함.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북한은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두고 있고 이를 위해 약 1천100km의 가스관을 건설할 계획"이라며 "이 가스관을 통해 매년 100억㎡의 천연가스를 수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北, 북러 정상회담 전례…"6자 재개·경제협력 합의"(8/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4일 러시아 올란우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핵 6자회담의 무조건 재개와 경제협력 확대 등에 합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전함.
 - 이어 중앙통신은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와 철도를 연결하는 문제 등 경제협력 관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시킬데 대한 일련의 의제들이 상정돼 그와 관련한 공동인식이 이룩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무그룹들을 조직 운영하며 두 나라가 이 방향에서 계속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또 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북한을 방문하도록 초청했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를 수락함.
 - 이날 회담에는 북한측에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강석주 내각 부총리, 김양건 당비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김영재 주러 대사가, 러시아측에서 세르게이 프리호디코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과 빅토르 이사예프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빅토르 톨로콘스키 시베리아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국방장관, 이고리 레비틴 교통장관,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 발레리 수히닌 주북 러 대사 등이 배석했다고 통신은 전함.
- **"김정일, 남한행 가스관 北통과 허용"(8/26, 인테르팍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한국 수출을 위한 가스관이 북한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허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빅토르 이사예프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26일 밝힘.
 - 이사예프 전권대표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지시로 20일부터 닷새 동안 이어진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기간에 특별열차를 함께 타고 끝까지 그를 수행했던 인물로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전권대표부가 있는 극동 하바롭스크에서 현지 기자들과 한 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만일 러시아와 남한이 천연가스 공급과 관련한 협정에 서명하면



- 북한은 가스 수송관 건설을 위해 영토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 그는 “북한은 그러나 러시아에서 남한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건설하기 위한 컨소시엄에는 참가할 계획이 없으며, 가스 통과와 영토 임대에 따른 수익만을 챙기려 하는 것”이라고 덧붙임.
 - 이사에프는 김 위원장과 러시아 국경도시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2km 철도 구간 보수 공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현재 러시아 철도 당국이 추진하는 보수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 10월이면 공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
 - 한편 김 위원장은 또 방러 기간 중 극동 지역에 북한 맥주공장을 설립하는 방안과 러시아 주요 도시에 북한 음식점을 열어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이사에프 전권대표는 전함.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訪中) 관련기사]

○ 김정일, 방러 후 귀국길 中 경유(8/25, 연합뉴스)

-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25일 오후 네이명구의 국경도시 만저우리(滿洲里)를 통해 중국으로 진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김 위원장은 전날 오후 러시아 동부의 울란우데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서 특별열차 편으로 중국으로 왔으며, 이번 방중은 지난 5월에 이어 3개월만이라고 뉴스는 전함.
- 일단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귀국일정 단축과 더불어 북한과 중국 간에 긴밀한 우의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아울러 빈번한 방중을 통해 북중 관계가 여전히 긴밀하고 공조체제가 공고하다는 점을 양국 국민과 주변국에 보여주려는 계산도 중국 경유 노선을 택한 주요 배경이라는 지적

○ 왕자루이, 네이명구 도착 김정일 영접(8/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는 러시아 시베리아 및 원동지역(극동지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시는 길에 25일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북지역에 위치한 네이명구 자치구를 방문했다”며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날 오후 국경역인 네이명구 만저우리(滿洲里)에 도착했다”고 보도
- 김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가 만저우리역에 도착 했을때 중국의 왕자루이(王家瑞)대외연락부장, 성광주(盛光祖)철도부장, 후춘화(胡春華)네이명구당서기, 후룬베이얼(呼倫貝爾)시서기와시장등이영접했다고중앙통신은전함.
- 이명구 방문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강석주 내각 부총리,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영일·김양건·박도춘·태종수 당비서, 박봉주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 오수용 함북 당 책임비서,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 리기범 주선양 북한총영사 등이 수행

○ 김정일, 中 치치하얼서 산업시찰(8/26, 연합뉴스; 신화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중국 방문 이틀째인 26일 헤이룽장(黑龍江)성 치치하얼(齊齊哈爾)을 찾아 산업시설을 시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치치하얼은 동북 지방에서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곳으로 현지 소식통은 "김 위원장 일행이 산업시설을 둘러본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디를 방문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함.
- 한편 관영 신화통신은 김 위원장의 방중 직후 이례적으로 방중 사실을 보도하면서 "동북지방을 경유 겸 순방할 것"이라고 보도

○ **김정일, 다칭서 다이빙귀와 회동(8/26,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 방문 이틀째인 26일 헤이룽장(黑龍江)성 다칭(大慶) 영빈관에서 중국 다이빙귀(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회동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김 위원장은 다이빙귀와의 회동에서 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유지 및 촉진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9.19 공동성명을 전면 이행 하겠다고 하면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안부와 축원을 전함.

○ **김정일, 중지안 넘어 만포로 귀국(8/27,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7일 오후 5시(한국시간 오후 6시)께 특별열차 편으로 중국 지안(集安)을 통과해 귀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김 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는 하루 전날 오후 8시(한국시간 오후 9시)께 헤이룽장(黑龍江)성 다칭(大慶)시를 출발해 3시간 후인 오후 11시께 하얼빈(哈爾濱)을 무정차 통과하고서 남하해 이날 오전 통화(通化)시에 상당시간 정차했으며, 김 위원장은 통화시에서 북한 고위층과 오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상대가 누구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직후 중국 경유를 선택한 것은 귀국 여정을 1천 500km가량 단축함은 물론 중국 측에 러시아 방문 결과를 즉각 '디브리핑(사후설명)'하는 절차를 가짐으로써 북중 간의 '탄탄한' 관계를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北, 김정일 귀국 보도...김정은 국경서 마중(8/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와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28일 보도
-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귀국한 27일 후계자인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경희 당 경공업 부장을 비롯한 당과 군대의 책임 일꾼들이 국경역으로 나와 김 위원장 일행을 맞이했다고 전함.



■ 김정일동향

- 김정일, 8.23 러시아연방 부랴티야공화국 방문(8/24, 중통·중방)
 - 지도간부들과 담화, 首都 울란-우데 등 참관 및 씨비리지역 여러 민족들의 풍습과 생활 了解, 바이칼호 방문, 대통령 주최 오찬참석 및 예술소품공연 관람
 - 대통령('바체슬라브 나고비'), 인민후탈 의장('마뜨베이 게르셰비치'), 씨비리연방구 주재 대통령전권 대표부 부랴찌야공화국담당 연방책임시찰원('쎄르게이 실린'), 부상 겸 대통령 및 정부행정부 책임자('뽀뜨르 노스꼬브') 등 영접
 -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강석주(내각 부총리), 장성택(국방총 부위원장), 등 수행간부 소수 동행
- 김정일, 8.24 러시아 대통령과 상봉 및 담화(8/25, 중통·중방)
 -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강석주(내각 부총리), 김양건(당 비서), 김계관(외무성 제1부상), 김영재(駐러 北대사) 참가

■ 기타 (대내 정치)

- 김영남·박의춘, 8.24 작별 방문한 駐北 가봉대사와 담화(8/24, 중통)
- 최영림 내각총리, 26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북-러 정부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의 러시아 측 위원장인 빅토르 바사르긴 지역발전상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정부 경제대표단을 만나 담화(8/26, 중통)

나. 경제

- "美NGO도 北수해복구에 90만 달러 기부"(8/22,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 대북 민간구호단체인 사마리탄스 퍼스가 자체적으로 90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을 북한의 수재민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
 - 이 단체는 북한 강원도와 황해도에 이불, 임시천막 설치용 자재, 위생용품 등을 보내고 분배모니터링을 위해 직원들을 북한에 직접 파견할 계획
- 北, 대북단체에 개성·안주 수해지원 요청(8/22, 연합뉴스)
 - 북한이 국내 대북지원단체들의 모임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에 개성과 평안남도 안주 지역에 수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해달라고 밝힌 것으로 22일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민협에 따르면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지난 20일 팩스를 보내 "우리의 큰물(홍수)피해를 돕고자 귀측이 제안한 내용을 상비(상의)해봤다"며 "개성은 크게 피해를 입은 곳이지만 아직까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성이 여의치 않으면 평안남도 안주 지역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힘.



- 북민협은 식량을 포함한 모든 수해지원 품목을 놓고 정부와 협의해 추석 이전에 지원물자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통일부 당국지는 "지원 품목과 지역 등을 놓고 승인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밀가루 등 식량은 수해지원 물자에 넣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함.

● "러, 내달 라진항 3호 부두 개조 착수"(8/22, 연합뉴스)

-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사용권을 확보한 라진항 3호 부두의 개조공사를 이르면 내달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중국 연길(延吉)의 한 소식통은 22일 "러시아가 라진항 3호 부두와 라진역-라진항 인입 철도 보수 공사에 착수하기로 북한과 최근 합의했다"며 "이르면 내달 시작될 것"이라고 밝힘.
- 러시아는 또 라진역에서 라진항으로 연결되는 3.8km 구간의 철도 인입선 보수 공사도 함께 착수할 계획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함.
- 한국교통연구원은 21일 러시아 당국 등의 발표 등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 하산-라진 간 52km 철도 구간 가운데 12.8km 구간의 개보수가 마무리됐고 현재 두만강역, 웅상역 등 8개 철도역에서 개보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힘.
- 대북 전문가들은 그러나 하산-라진 철도 개보수에 시간이 걸리고 당장은 라진항을 이용할 러시아 물자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3호 부두의 본격적인 가동은 빨라도 내년이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

● 北, 이달 말 금강산특구 시범여행 실시(8/22, 연합뉴스)

- 북한이 해외기업과 주요 언론매체들을 초청해 금강산특구 시범여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 시범여행은 북측 금강산국제관광특구위원회, 라선특별시인민위원회, 조선대풍국제투자집단이 주관하는 것으로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한 측 재산을 법적으로 처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으며, 북측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홍콩 등의 투자기업인과 관광회사 등의 관계자 수십 명과 중국 내 동북3성 대표단, 그리고 미국의 AP, 영국의 로이터, 일본의 아사히신문, 홍콩의 봉황TV, 중국의 환구시보와 CCTV, 동북3성의 흑룡강신문·요녕신문 등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짐.
- 북측이 준비한 금강산 시범여행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5박6일 일정인데, 구체적으로 중국 연지를 출발해 훈춘을 거쳐 북한 라선으로 들어가고, 라선에서 배편으로 금강산 장전항으로 향했다가 다시 같은 배편으로 라선을 통해 귀환하도록 짜여 있음.

● "북한 주요 지하자원 잠재가치 10조4천억弗"(8/23, 연합뉴스)

- 최근 광물 가격 상승으로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 잠재가치가 지난달 현재 기준으로 2009년에 비해 39.3% 증가한 10조4천억 달러로 커졌다는 추정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민간 연구소인 북한자원연구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남한은 같은 기간 44.5% 증가한 4천70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 연구소는 그동안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북한의 자원별 매장량에 2009년부터 1년간의 시세변화를 적용해 잠재가치를 계산함.
 - 주요 광물별로 보면 북한의 금 잠재가치는 1천346억8천700만 달러로 남한(20억2천500만 달러)의 67배였고, 철광석은 7천946억7천700만 달러로 남한(59억8천600만 달러)의 133배였음.
 - 북한에서 가장 잠재가치가 높은 광물은 석탄으로 3조4천802억2천만 달러였고, 마그네사이트와 석회석 등의 순으로 잠재가치가 높을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
 - 또 북한 우라늄은 163억300만 달러로 남한의 38억2천800만의 4배에 달함.
 - 다만, 정부가 최근 수요 확보를 위해 진력하고 있는 희토류의 경우 북한의 잠재가치는 442억1천100만 달러로서 958억7천200만 달러로 추정되는 남한에 비해 오히려 낮았는데, 연구소는 이에 대해 "북한이 최근에서야 희토류 자원에 대한 탐사를 시작해, 밝혀진 매장량이 적기 때문"이라고 해석
- **北 나선서 투자토론회 개최(8/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나선경제무역지대에서 23일 투자토론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함.
 - 나선경제무역지대법, 기업창설 및 경영규정과 같은 투자환경 소개와 영상물 시청 등이 진행된 토론회에는 제1차 나선국제상품전시회 참가자와 투자상담을 위해 나선을 찾은 외국인들이 참가
 - 리주일(46) 나선시인민위원회 경제협조국 국장은 "최근 나선경제무역지대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튼튼한 제도적·법률적 기초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우리(북한)는 외국기업들과의 다방면적인 접촉과 거래를 보다 강화해 나선경제무역지대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세계식량계획, 원산서 대북사업 점검"(8/24, 자유아시아방송(RFA))**
 - 세계식량계획(WFP)이 지난 21일 북한 강원도 원산에서 회의를 열고 수해 복구와 식량지원 등 대북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WFP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 WFP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함경남도 함흥의 식품공장에서 생산하는 새로운 혼합식품의 분배 상황을 점검
 - 회의에는 WFP 본부와 평양, 중국 측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북한 당국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리비아 내 北근로자 200여명 정상근무"(8/24, 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RFA))**
 - 반군과 정부군이 교전을 벌이는 리비아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정상적



- 로 근무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정부 관계자는 이날 "리비아 내 북한 근로자는 의사, 간호사, 건설노동자 등 200여명이 되는데 아직 북한에 돌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또한 리비아 주재 한국대사관 측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리비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는 주요 도시가 아닌 사막이나 외진 지역에서 일하고 있어 리비아 내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힘.
- "러, 北 김정은에 국제정보 교육 제안"(8/24, 산케이신문)
- 러시아가 북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에 대한 국제 정보 교육을 위한 정보기관원 파견을 제안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4일 보도
 -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 정보 당국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간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교섭에서 김정은에게 국제 정세를 교육하기 위해 대외정보국(SVR) 요원을 파견하겠다고 제안
 - 신문은 "북한 측도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일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면서 "일국의 지도자 후보가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직접 국제 정세에 관한 정보제공을 받겠다는 것은 이례적이다"고 전함.
 - 신문은 이어 "북한이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일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은 국가지도자로서 경험이 없는 김정은을 조속히 국가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고 분석
 -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에 대한 국제 정보교육은 지난 5월 정상회담의 사전 조율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미하일 프라드코프 대외정보국(SVR) 국장이 제안
- 러시아 "北, 舊 소련에 110억弗 채무"(8/24, 연합뉴스)
- 러시아와 북한 양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진 약 110억 달러(약 11조9천억원)의 채무 상환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세르게이 토르차 러시아 재무차관이 24일 밝혔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
 -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스트로차 차관은 이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열린 올란우데에서 기자들에게 "110억 달러는 북한이 옛 소련에 진 채무"라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당시 북한에 제공된 자금은 1달러당 60 코페이카(100분의 1루블)의 환율로 지급됐다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면 루블화 재계산 방법과 채무 지불 순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임.
 - 차관은 그러나 북한이 옛 소련에 대한 채무를 인정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우선 북한이 러시아를 소련의 승계국으로 인정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그는 "먼저 북한에 이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채무액 산정을 위한 계산법에 대한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러시아는 앞서 지난 2006년 옛 소련에 대한 북한의 채무액을 80억 달러로 산정했었는데, 북한의 대(對) 러시아 채무가 이보다 훨씬 늘어난 것은 상황 지체에 따른 벌금 부과 때문이라고 러시아 언론 매체들은 설명

● "프랑스, 北에 14만 달러 식량 추가지원"(8/25, 미국의소리(VOA))

- 프랑스 외무부가 북한의 식량 지원을 위해 14만 달러를 추가로 기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
- 방송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프랑스의 구호단체인 '프리미어 어전스' 관계자를 인용, 프랑스 정부가 지원하는 식량이 9월 초부터 함경도와 황해북도 내 학생 2천850명과 교사 726명에게 분배될 예정이며, 고아와 장애인에게 쌀, 옥수수, 콩, 콩기름 등 3개월 치 식량을 지원할 계획

● 북-러 제5차 경제협력 의정서 체결(8/26,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러시아 정부 대표단이 26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의 제5차 회의 의정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의 북측 위원장인 리용남 무역상과 러시아측 위원장인 빅토르 바사르긴 러시아 지역발전상이 의정서에 서명
- 중앙통신은 그러나 의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의정서에는 지난 24일 러시아 올란우데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러시아와 남북한 등 3개국 간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철도 연결 문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관측됨.

■ 기타 (대내 경제)

- '제1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 8.22 조정호(라선시 인민위원장/전시회 조직위원장), 청진駐在 中·러시아 총영사 등 참가자 진행(8/22, 중통)
 - 중국, 러시아, 호주, 이탈리아, 미국, 대만의 110여 단위에서 전기 및 전자, 경공업, 식료 및 의약품, 운전기재 등 출품

다. 군사

● 中량광례, 北과 군 관계 강화 약속(8/26, 신화통신)

- 중국의 량광례(梁光烈)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26일 전창복 인민무력부 후방총국장을 단장으로 방중한 북한대표단을 만나 양국 군사관계 강화를 약속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
- 량 국방부장은 베이징(北京)에서 북한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적 상황에서 중국은 북중 군사관계 증진을 위해 더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
- 북한 측 전창복 후방총국장은 "북중 군 간의 지원이 양국 우호에 상당히



기여해왔다"며 "북측은 국제사회가 혼란한 시기에 양국 국민과 군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

- 북한 대표단은 북중 우호협력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아 중국을 방문했으며, 이에 앞서 북한 대표단은 25일 라오시룽(廖錫龍) 중앙군사위원 겸 인민해방군 총후근부장을 만남.

라. 사회·문화

● 적십자 "北 홍수로 이재민 2만 9천 명 발생"(8/22, 연합뉴스)

- 국제적십자연맹(IFRC)은 22일 최근 3개월 동안 북한에서 발생한 홍수와 태풍으로 2만9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 제네바에 본부를 둔 적십자는 북한 지역 남부와 남서부에서 발생한 홍수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경우 마을 주민의 절반 이상이 집을 잃었으며, 약 7천500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구호식량과 식수, 대피시설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함.
- 적십자에 따르면 피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은 북한의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임.

● 평양 순안공항 현대식 새 터미널 개관(8/23,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평양의 순안국제공항이 지난달 현대식 시설을 갖춘 새 터미널을 완공해 운영 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
- 새 터미널은 수하물, 세관 통과, 출입국 관리 등 현대식 시설을 갖췄고, 북한은 최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과 항공 노선을 하나둘씩 개설해 왔다고 방송은 전함.
- 북한은 지난달 초 순안공항과 중국 상하이(上海) 푸둥(浦東)국제공항 간 직항노선을 신설한 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평양과 중국 시안(西安)을 잇는 전세기 직항노선의 운항도 시작

● "北 수해로 급성영양실조 10% 증가"(8/26,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아동기금(UNICEF)은 26일 "북한에서 수질이 악화해 마실 물이 없어 수해지역 주민 가운데 급성 영양실조 발병이 10%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함.
- 이 기구는 또 "북한에서는 올해 홍수로 설사병 발병이 40% 늘었고 결핵 감염도 20% 늘어났다"며 식수와 위생 분야에 대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 피서객 북적이는 북한판 '캐리비안 베이'(8/28, 우리민족끼리;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28일 '시원한 여름'이라는 제목으로 평양시에 있는 만경대물놀이장 사진 40여장을 게재
- 만경대물놀이장은 2009년 8월 조선중앙TV가 바닥포장과 건물·구조



- 물·설비 도색작업 등 보수공사를 거쳐 새로 단장했다고 보도한 평양의 야외수영장임.
- 이에 북한 매체가 그동안 주민의 물놀이 사진을 몇 장씩 내보낸 적은 있었지만 한꺼번에 40여장이나 공개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특히 북한이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정한 내년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현대식 놀이시설을 부각한 것 자체가 흥미롭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여기에는 여가를 즐길 정도로 주민의 생활수준이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적으로 폐쇄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고 뉴스는 덧붙임.

2. 대외정세

가. 일반

- **美 AP통신사 대표단 방북(8/23, 조선중앙통신)**
 - 미국 AP통신사 대표단이 23일 방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함.
 - 중앙통신은 이날 "존 다니제브스키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AP통신사 대표단이 23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힘.
 - 대표단은 평양에 머물면서 북측과 지국 개설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임.
 - 톰 콜리 AP통신 사장은 22일 미국 뉴욕 맨해튼의 유엔본부에서 연합뉴스와 유엔이 함께 개최한 '유엔-연합뉴스 보도사진전' 뉴욕전 개막식에 참석해 "내년 초에는 평양에 AP통신의 종합 지국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국이 개설되면 "취재와 사진기자 각 1명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힘.
- **"北, 중국 의존도 줄이려 러시아에 접근"(8/23, 르몽드)**
 -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 몽드는 23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최근 러시아 방문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
 - 르 몽드는 이날 도쿄발 기사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양국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을 경유해 러시아와 한국을 잇는 남·북·러 가스관 건설 계획에 주목
 - 르 몽드는 러시아가 옛 소련 시대까지는 북한의 최대 동맹국이었으나 지금은 그 지위를 중국에 빼앗긴 상태라면서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美, 테러보고서 北항목 뒤늦게 추가(8/23, 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최근 발간한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 관련 항목을 제외



- 했다가 뒤늦게 추가한 것으로 23일 확인되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2010 국가별 테러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항목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우 중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과 함께 북한이 명단에 올랐음.
 - 수정된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지난 1987년 발생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어떤 테러 활동에 대해서도 북한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바 없다"는 기존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지난 2008년 10월 미 정부가 지정하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이 제외됐다고 밝혀 3년째 지정 제외를 유지
 - 미국은 북한의 천안함 도발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와 관련, 천안함 사태는 상대방 국가 군대에 대한 공격행위라는 점을 들어 국제적 테러로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보고서는 지난 1970년 일본 민항기 납치에 관여했던 일본 적군과 요원 4명이 북한에 계속 살고 있으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
 - 아울러 북한이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대(對)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에 재지정 했다고 밝힘.

나. 6자회담(북핵)

● 美 "北제안, 6자회담 재개에 불충분"(8/25,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4일 북한이 러시아 올란우데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핵실험 잠정중단 의사 등을 밝힌 것과 관련, "불충분하다(insufficient)"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레브리핑에서 "실제로 그들(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중단할 의지가 있다면 이는 환영할 일"이라면서 "그러나 6자회담을 재개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말함.
- 그는 "지난해 말 북한이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은 여전히 우리에게 심각한 우려"라면서 "이런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를 위반한 것이고, 2005년 9.19 공동성명의 합의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
- 그러면서 "만약 그것(북한의 제안)이 사실이라면 환영할만한 첫 조치이나 충분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재차 강조
- 또 북한 비핵화 노력과 관련한 러시아의 역할에 언급, "러시아는 6자회담 참가국으로, 그들의 목적은 우리와 같다"며 "북한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아냈는지는 그들에게 물어봐야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같다"고 설명

● 日 언론 "북러 회담서 6자회담 관련 진전 없어"(8/25,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

- 일본 매체는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이 핵실험을 한동안 중단할 의사를 표시하긴 했지만 구체성이 결여됐고, 6자회담 재개를 향한 진전은 없었다'고 평가



- 아사히신문은 25일자 1면 기사에서 북러 양측이 한반도 관통 가스관 사업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하면서 "북한 측이 앞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
 - 요미우리신문은 러시아의 한반도 가스관 사업이 북한의 핵개발 포기에 대한 대가라는 측면이 있다고 거론하며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지원 카드'의 효과에 기대를 걸었지만 큰 성과는 얻지 못했다"고 적음.
 - 마이니치신문은 김 위원장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실험 동결 의사를 표시한 데에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이용해 6자회담 관련 대미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
- **北신문, 6자회담 복귀의지 재천명(8/27,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찬양하는 논평을 통해 북핵 6자회담에 조건 없이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힘.
 -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날 '조로(북·러) 친선의 연대기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역사적 사변' 제목의 사설에서 "조선반도(한반도)의 비핵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훈"이라며 "6자회담을 통해 조선반도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입장은 일관하다"고 주장
 - 신문은 이어 24일 열린 북·러 정상회담 합의 내용에 대해 "두 나라 영도자들의 회담에서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해 9·19공동성명을 동시행동 원칙에 기초해 이행함으로써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앞당기는 데 대해 의견일치를 본 것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 두 나라의 원칙적 입장의 발현"이라고 평가

3. 대남정세

- **北 "금강산 재산권 21일부터 법적처분"(8/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2일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권 문제와 관련, "남조선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부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있는 남측 부동산과 설비 및 운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힘.
 - 북한은 이날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금강산에 들어와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지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한다"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남아있는 남측 성원들은 72시간 안에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대변인은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 재개도 재산등록도 끝끝내 다 거부해나선 조건에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26조와 제40조 등 관련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힘.



- 대변인은 이어 "온 민족과 전 세계의 관심 속에 진행되는 금강산관광사업이 오늘의 사태에 처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괴뢰보수패당에게 있으며 그 죄행은 두고두고 겨레의 규탄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남측을 비난
- **北 "금강산 재산권 침해 주범은 남측"(8/24, 연합뉴스; 우리민족끼리)**
 - 북한은 24일 금강산 관광지구내 재산정리와 관련, 북한의 변호사까지 동원해 남측 사업자들의 재산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선변호사회 소속 최중진은 이날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연단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는 어제와 오늘도 금강산지구에 널려있는 각종 부동산, 설비 등을 비롯한 남측 사업자들의 재산을 침해한 적이 없으며 또 그럴 의사도 없다"고 밝힘.
 - 그는 "신뢰와 화합에 기초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화해협력으로 평화변영을 이룩하려는 것이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재산권침해를 논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철두철미 금강산 관광을 파기해 오늘의 지경으로 끌고 간 남조선 당국에 있다. 진짜 주범은 남조선 당국"이라고 주장
 - 또 북한이 재산정리와 관련해 협상을 할 기회도 여러 차례 마련했으나 남한 당국이 자신들의 노력에 먹칠을 하고 모독했다고 비난
- **통일부 "北조치에 법적·외교적 대응"(8/22, 연합뉴스)**
 - 통일부는 22일 금강산 재산권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 처분을 단행하겠다는 북측 발표에 유감 표명과 함께 법적·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법적·외교적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천 대변인은 "북한이 사업자 간 계약과 당국 간 합의를 위반하고, 금강산에 있는 우리 기업의 재산과 인원들에 일방적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일방적 조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
 - 천 대변인은 북측이 금강산지구에 체류 중인 남측 인원에 대해 72시간 안에 나가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현대아산 등 관련 기업들과 협의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이날 오전 현재 금강산지구 안에는 주로 시설관리 등을 담당해온 현대아산, 에머슨퍼시픽 관계자를 비롯해 총 14명의 우리 국민이 체류 중으로 북측이 72시간 내 철수를 요구함에 따라 이들 14명은 오는 24일까지 귀환할 것으로 보임.



- **李대통령 "김정일 러시아 방문 긍정 평가"(8/22,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평가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함.
 - 박 대변인은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방러를 긍정 평가한 것은 중국 방문을 긍정 평가한 것과 이유가 같다"면서 "대통령은 북한이 자꾸 개방된 사회에 가서 보면 결국 북한의 경제 발전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고 설명

- **정부 '北금강산조치' 관계부처 대책반 구성(8/25,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금강산 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북측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밝힘.
 - 통일부 서호 남북교류협력국장이 단장을 맡고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석하며, 첫 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에서 열린다고 뉴스는 전함.
 - 한편 정부는 법적 대응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나 국제상사중재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제소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진다고 뉴스는 전함.

- **北지령 간첩단 '왕재산' 적발...김일성 면담 (8/25, 연합뉴스)**
 -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조선 혁명을 위한 남한 내 조직을 구축해 활동한 반국가단체가 공안당국에 적발되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검찰 등에 따르면 총책인 김씨는 김일성 주석 사망 1년 전인 1993년 8월 김 주석과 직접 면담해 '남조선혁명을 위한 지역지도부를 구축하라'는 명령과 함께 유일 영도체계 구축, 김일성 부자 혁명사상·위대성 보급 등 5대 과업을 내용으로 한 '접견교시'를 하달 받아 활동을 개시
 - 김씨는 학교후배인 인천지역책 임씨와 대학동창인 서울지역책 이씨를 포섭해 각각 '관순봉' '관상봉'이란 대호명을 받게 한 뒤 2001년 3월 '왕재산'이란 지하당을 구축해 암약해온 것으로 조사
 - 북한은 2005년 간첩활동 공로를 인정해 유씨를 제외한 4명에게 노력훈장을 수여했고, 연락책 이씨는 국기훈장도 받았다고 검찰은 밝힘.
 - 이들은 또 조직원의 정치권 침투 지령을 받아 정치인들의 동향을 수시로 보고했으며, 특히 정당원으로 활동하던 서울지역책 이씨는 정치권 내 지위확보를 위해 임채정 전 국회의장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한 데 이어 18대 총선 출마를 위해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했다고 검찰은 설명



■ 기타 (대남)

- 【北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8.22)】 “南 당국이 관광재개와 재산등록을 거부한 조건에서 특구법 제26조, 제40조 등 관련법률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할 것” 선포(8/22, 중통·중방)
 - 남측 부동산과 설비, 운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들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 처분을 단행함.
 - 금강산에 들어와 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함.
 -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남아있는 남측 성원들은 72시간 안에 나가야 함.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 "러시아, 北비핵화 인식 공유"(8/23)

- 미국 정부는 22일 "러시아는 6자회담 참가국으로서 우리 모두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 이같이 지적한 뒤 "우리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따라서 러시아에 김 위원장이 있다면 이런 점들이 그에게 전달될 것으로 희망하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김 위원장의 방러에 대해 러시아 당국과 협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우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러시아 측과 대화 하고있다"고 밝혔다.
- 이어 눌런드 대변인은 러시아의 대북 지원 가능성에 대해 "가설에 근거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 이밖에 그는 지난달 말 뉴욕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이 미국에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밝힐 만한 부분은 모두 발표했다"면서 "현재로선 뉴욕회담에 대해 더 언급할 게 없다"고 덧붙였다.

● 러 대통령 "北, 6자회담 무조건 재개 합의"(8/24)

- 24일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 도시 울란우데에서 열린 북한-러시아 정상 회담에서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재개에 합의했다고 나탈리야 티마코바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이 밝혔다.
-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티마코바 대변인은 이날 오후(현지시각) 울란우데 외곽 제11공수타격여단 영내에서 열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끝난 뒤 이같이 밝혔다.
- 티마코바는 "김 위원장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6자 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밝혔다"며 "그러면 6자 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핵물질 생산 및 핵실험을 잠정중단(모라토리엄)할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한편,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과 허심탄회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했다"면서 북한이 자국을 거쳐 남한까지 이어지는 천연가스 수송관을 지지함으로써 가스관 건설에 합의할 수도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음. 그는 "나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긍정적인 느낌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밝혔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북한을 거쳐 남한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위한 3자 위원회 발족에 합의했다고 부연하면서 "가스 협력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 특히 북한을 거쳐 남한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북한은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두고 있고 이를 위해 약 1천100km의 가스관을 건설할 계획"이라며 "이 가스관을 통해 매년 100억㎥의 천연가스를 수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일 수요가 있으면 이 수송능력을 더 늘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 日 언론 "북러 회담서 6자회담 관련 진전 없어"(8/25)

- 일본 매체는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이 핵실험을 한동안 중단할 의사를 표시하긴 했지만 구체성이 결여됐고, 6자회담 재개를 향한 진전은 없었다'고 평가했음.
- 아사히신문은 25일자 1면 기사에서 북러 양측이 한반도 관통 가스관 사업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하면서 "북한 측이 앞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6자회담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이 "평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 요미우리신문은 러시아의 한반도 가스관 사업이 북한의 핵개발 포기에 대한 대가라는 측면이 있다고 거론하며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지원 카드'의 효과에 기대를 걸었지만 큰 성과는 얻지 못했다"고 적었음.
- 마이니치신문은 김 위원장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실험 동결 의사를 표시한 데에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이용해 6자회담 관련 대미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음.

● 위성락 방중.. 한중 6자수석대표회담 개최(8/25)

-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중 수석대표 회담차 25일 베이징(北京)을 방문했음. 위 본부장은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 도착해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각 오전 11시)께 주중 한국대사관이 마련한 차량편으로 공항을 빠져나갔음.
- 위 본부장은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중국 외교부로 가서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만나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 뉴욕에 가서 (북미 간에) 얘기된 내용에 대해 상의 하겠다"고 말했음.
- 이번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남북회담과 뉴욕 북미회담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됨. 위 본부장은 출국에 앞서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 현황을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화 과정을 진행해 나갈지 폭넓게 협의할 것" 이라면서 "어제 열린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간단한 의견교환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우리 측은 특히 북·러 정상회담 합의 내용 가운데 "회담 과정에서(in the course of the talks) 북한이 핵물질 생산 및 핵실험을 잠정중단(모라토리엄)할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목에 주목하고 있음.
- 위 본부장의 방중에는 우리 측 차석대표인 조현동 북핵외교기획단장이 동행했음. 위 본부장 일행은 한중 회담 후 이날 중으로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 美 "北 전제조건 충족해야 6자회담 재개"(8/26)

- 미국 정부는 25일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HEU) 폐기, 남북관계 개선 등의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음.
-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에 관한 질문에 "북한의 HEU가 민간 목적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우리는 이미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 그는 또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으며, 북한은 2005년 국제사회에 약속을 한 바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이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는 북한이 HEU를 폐기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핵무기 전량 폐기와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 복귀 등의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됨.
- 눌런드 대변인은 이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목적에 대해서는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성격을 규정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음. 그러면서 "지난달 뉴욕 미·북 회담을 개최한 것은 대화 재개를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직접 채널을 통해 그들에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며 "북한이 이들 가운데 일부에 진전을 보인다고 해도 여전히 불충분하다(insufficient)"고 지적했다.
- 앞서 눌런드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북한이 최근 대량살상무기(WMD) 실험 잠정 중단(모라토리엄) 등을 제안한 것과 관련,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불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음.

● 당국자 "남북 비핵화회담 다음 달 재개 모색"(8/26)

- 정부 고위당국자는 26일 다음 달 중으로 남북 비핵화 회담과 북미 후속 대화가 개최될지 여부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기대를 전혀 갖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분위기 조성 작업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아직은 답변하기 조심스러우며 다음 달 중으로 후속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이 같은 언급은 지난 7월 하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남북 비핵화 회담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대화에 이어 다음 달 중으로 남북-북미대화 '라운드'를 물밑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됨.
- 그는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서 "후속대화가 안될 수도 있으며 그 이후에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계속 모색을 해보겠다는 입장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 그는 남북-북미대화의 선후문제에 대해 "앞으로 후속대화를 모색하면서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면서 "남북-북미대화의 첫 과정 이후 남북대화의 중심성이 오히려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선(先) 남북-후(後)북미대화'를 강조해온 우리 정부의 입장이 상황에 따라 유연해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임.
- 그는 또 북한이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 '대량살상무기(WMD) 실험을 잠정 중단할 준비가 됐다'고 밝힌 데 대해 "그전에도 6자회담이 열리면 모라토리엄을 비롯한 핵문제 전반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는 시사가 있었으며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면서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단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해보겠다는 입장이며 러시아 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이 당국자는 북한이 후속대화에 앞서 한미일이 요구하는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제기해놓은 것은 있지만 그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 이 당국자는 지난 25일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중국 방문결과에 대해 "한·중 양국은 기존에 5자가 공감한 바와 같이 남북대화 등 다양한 양자·다자접촉을 통해 6자회담 재개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도 남북대화가 지속돼야 한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 그는 또 "6자회담 재개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한 의지를 구체적 행동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중국 측에 거듭 강조했다"면서 "중국도 남북·북미 대화가 적극적 성과를 거둬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속히 조성되길 바란다는 반응"이라고 소개했다.
- 그는 특히 북한 우리농농축프로그램(UEP)과 관련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중국 측 반응에 새로운 것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 측과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 정보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언론 보도나 전해들은 얘기를 기초로 얘기가 오갔으나 깊이 있는 대화는 아니었다"면서 "다만 북한이 WMD 모라토리엄을 거론한 데 대해 '그게 맞다면'이라는 전제 아래 논의했다"고 말했다.



● **김정일,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 용의(8/26)**

- 중국을 방문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6일 헤이룽장(黑龍江)성에서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회동, 북한은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이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다칭(大慶)발로 보도했음.
- 김 위원장은 또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지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및 촉진을 위해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을 모든 당사자들과 함께 완전히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음.
-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승용차 편으로 다칭을 방문, 신개발구 등을 시찰한 뒤 영빈관에 머물고 있으며 중국중앙TV방송(CCTV) 차량이 오후에 영빈관 정문을 통해 나오는 것이 목격됨에 따라 이곳에서 김정일-다이빙궈 회동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됨.

나. 미·북 관계

● **"美NGO도 北수해복구에 90만 달러 기부"(8/22)**

- 미국의 대북 민간구호단체인 '사마리탄스 퍼스'가 자체적으로 90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을 북한의 수재민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했음.
- 이 단체는 북한 강원도와 황해도에 이불, 임시천막 설치용 자재, 위생용품 등을 보내고 분배모니터링을 위해 직원들을 북한에 직접 파견할 계획임.
- 이로써 올해 미국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북한에 전달되는 구호물자는 180만 달러로 늘었음.

● **美 AP통신사 대표단 방북(8/23)**

- 미국 AP통신사 대표단이 23일 방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존 다니제브스키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AP통신사 대표단이 23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음. 대표단은 평양에 머물면서 북측과 지국 개설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임.
- 톰 켈리 AP통신 사장은 22일 미국 뉴욕 맨해튼의 유엔본부에서 연합뉴스와 유엔이 함께 개최한 '유엔-연합뉴스 보도사진전' 뉴욕전 개막식에 참석해 "내년 초에는 평양에 AP통신의 종합 지국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국이 개설되면 "취재와 사진기자 각 1명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美, 테러보고서 北항목 뒤늦게 추가(8/23)**

- 미국 정부가 최근 발간한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 관련 항목을 제외했다가 뒤늦게 추가한 것으로 23일 확인됐음. 이날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0 국가별 테러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항목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중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캄보디아, 인도



- 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과 함께 북한이 명단에 올랐음.
- 앞서 지난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해당 보고서가 발간되기 시작한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항목이 아예 제외돼 이를 놓고 여러가지 분석이 제기된 바 있음. 국무부는 뒤늦게 북한 항목이 추가된 이유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 내부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음.
 - 수정된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지난 1987년 발생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어떤 테러 활동에 대해서도 북한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바 없다"는 기존의 내용을 포함했음. 그러면서 지난 2008년 10월 미 정부가 지정하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이 제외됐다고 밝혀 3년째 지정 제외를 유지했음.
 - 미국은 북한의 천안함 도발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와 관련, 천안함 사태는 상대방 국가 군대에 대한 공격행위라는 점을 들어 국제적 테러로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그러나 보고서는 지난 1970년 일본 민항기 납치에 관여했던 일본 적군파 요원 4명이 북한에 계속 살고 있으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아울러 북한이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대(對)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에 재지정 했다고 밝혔음.
- "美 보즈워스, 북한에 유해발굴 회담 제안"(8/27)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최근 북한에 미군 유해 발굴사업 재개를 위한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했음.
 - VOA는 켈리 아요테(공화, 뉴햄프셔) 미 연방 상원의원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인용해 이렇게 전했다.
 -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아요테 의원은 이 편지에서 "보즈워스 대표가 북한에 유해발굴 재개를 위한 회담을 제안하는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으나 보즈워스 대표가 서한을 전달한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음.

다. 중·북 관계

- "北, 만경봉호로 라진-금강산 관광 추진"(8/22)
 -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한 측 재산을 법적 처분하겠다고 밝힌 북한이 만경봉호를 이용해 라진에서 금강산을 다녀오는 관광코스 운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 연변(延邊)의 소식통들은 22일 "북한이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라진에서 만경봉호를 타고 금강산을 다녀오는 3박4일 일정의 관광 코스 운영을 추



- 진 중"이라며 "오는 30일 첫 시범관광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음.
- 시범관광은 30일 오전 중국의 훈춘에서 차량으로 이동, 라진항에 도착한 뒤 만경봉호를 타고 출발, 이튿날인 31일 금강산에 당도해 다음 달 1일까지 이틀간 해금강 등 금강산 관광지를 둘러보고 2일 라진으로 돌아오는 코스임. 라진항에서는 30일 출발에 앞서 첫 금강산 관광을 기념하는 출항식도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 소식통들은 이번 라진-금강산 시범관광 경비는 3천 위안(50만8천 원)에 관광객 모집 정원은 120명이며 북한이 연변의 한 중국 기업을 통해 이달 초부터 관광객을 모집 중이라고 전했다.
 - 북한은 이에 앞서 22-25일 열리는 제1회 라선국제상품전시회 기간에 만경봉호를 라진항 앞바다에 띄워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유람선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는 두 척의 만경봉호가 있으며 라진-금강산 관광에 투입될 배는 만경봉 92호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배는 1992년 김일성 주석의 80회 생일을 맞아 조총련계 상인들이 40억 엔(당시 환율로 약 400억 원)을 모아 만든 9천700t급으로 탑승 인원은 350명임. 이 선박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 북한 응원단을 태우고 부산항에 들어와 북측 응원단 숙소로 사용됐음.
 - 또 다른 만경봉호는 1950년대 후반부터 원산과 일본 니가타 항을 오가며 재일교포를 북한으로 이주시키다 1984년부터는 화물선으로 일본을 드나들었음.
 - 그러나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자 일본은 대북제재 차원에서 이 배의 입항을 금지했음. 이 배는 낡고 3천500t급으로 규모도 작아 장거리 유람선으로는 부적합하다는 분석임.
 - 북한은 22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 내 남한의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혔으며 금강산특구 내 남측 성원들도 72시간 내에 나가야 한다"고 밝혔음.

● 中매체, 北·러 정상회담 자세히 보도(8/25)

- 중국 매체들이 25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소식을 비교적 자세히 보도했음. 이들 매체는 대부분 김 위원장이 무조건적인 6자회담 복귀의지를 밝혔고, 러시아-북한-남한을 잇는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에 동의했다는 게 회담의 골자라고 소개했음.
- 관영 신화통신은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 도시 울란우데에서 열린 24일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6자회담의 과정에서 미사일과 핵 무기의 시험과 생산을 모라토리엄(잠정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통신은 "북·러 양국 정상이 러시아와 남북한 간 가스관 개설 사업에 동의했다"면서 "회담에서는 구소련 붕괴이후 남아 있는 북한의 러시아 채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음. 통신은 현재 북한이 러시아에 갚아야 할 채무는 110억 달러 상당이라고 덧붙였다.
-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이날 신화통신의 기사와 사진을 인용해



- 북·러 정상회담 소식을 전했다. 인민일보 자매지로 국제문제를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환구시보는 김 위원장이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올란우데에서 2시간 10분 가량 회담했다면서 북한의 6자회담 무조건 복귀와 러시아-북한-남한 가스관 건설이 주요 합의 내용이라고 보도했음.
- 환구시보는 특히 연합뉴스를 인용해 정상회담을 마치고 김 위원장이 동쪽으로 향했다고 전하면서, 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곧바로 귀국하거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와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썼음.
 -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는 김 위원장이 당초 정상회담후 올란우데에서 가극 공연을 관람하려했다가 계획을 바꿔 곧바로 특별열차 편으로 귀로에 올랐다고 전했다.
 - 중국신문사는 그러면서 현재로선 김 위원장이 탄 열차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으나, 러시아와 접경으로 만주횡단철도(TMR)로 진입하는 중국 내이명구(內蒙古) 만주리(滿州里)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음.
- **中인민해방군 총후군부장, 北대표단 접견(8/26)**
- 중국의 라오시룽(廖錫龍) 중앙군사위원 겸 인민해방군 총후군부장이 전창복 인민무력부 후방총국장을 단장으로 방중한 북한대표단을 접견했다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26일 보도했음.
 - 북한대표단은 북중우호협력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아 방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 라오시룽 총후군부장은 "국경을 맞대는 중국과 북한은 한결같이 서로 지지해왔고 선혈이 응고된 우의를 지켜온 전통이 있다"며 "중국은 북한과의 군사관계를 중시하고 인민해방군과 인민군 간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중국 인민해방군 조직은 중앙군사위 산하에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군부, 총장비부 등 4개의 수뇌부 역할을 하는 4대 기구가 있으며 이를 통틀어 사총부(四總部)라고 부름.
 - 북한 측 전창복 후방총국장은 "북중 양국은 견고한 우호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중국은 각 방면에서 큰 성과를 내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북한 인민과 군은 이를 본받을 가치가 있다"고 화답했음.
- **김정일, 다칭서 다이빙귀와 회동(8/27)**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 방문 이틀째인 26일 헤이룽장(黑龍江)성 다칭(大慶) 영빈관에서 중국 다이빙귀(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회동했음. 김 위원장은 다이빙귀와의 회동에서 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 김 위원장은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유지 및 촉진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9.19 공동성명을 전면이행 하겠다면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인부와 축원을 전했다.
 - 김 위원장은 북한과 중국은 근린관계로 마땅히 자주 왕래해야 한다고 덧



- 붙였음. 다이빙위 위원과의 회동을 마친 김 위원장은 특별열차를 타고 하얼빈으로 향했음.
- 김 위원장과 다이빙위 위원의 회동은 이번 방중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은 하얼빈을 경유해 북한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임.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중국시간) 헤이룽장성 치치하얼(齊齊哈爾)을 방문, 치(齊)2공장기계공장과 명뉴(蒙牛)유업 등을 방문했음.
 - 치치하얼 방문을 마친 뒤 김 위원장은 중국 최대의 유전이 있는 석유도시 다칭을 방문해 신개발구의 도시계획전시관과 주택건설 현장을 둘러봤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음.
 - 다칭에는 시베리아 아무르주에서 다칭으로 이어진 송유관 시설이 있어 이곳도 방문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는 이날 오후 다칭 시내 교통이 많이 막힌다면서 "김정일이 다칭에 온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의 많이 올랐었음.
 - 치치하얼은 동북 지방에서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곳이고, 다칭은 중국 최대 육상유전지대가 있고 그와 연계한 화학공업단지가 있는 곳임. 두 도시에는 이날 아침부터 경계경비와 함께 교통통제도 크게 강화됐었음.
 - 김 위원장은 러시아 방문에서도 러시아-북한-한국을 잇는 천연가스관 건설 계획을 지지하는 등 에너지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음.
 -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는 특별열차에 중국 측 고위인사들도 동승해 일정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음. 김 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가 25일 네이명구(內蒙古) 만저우리(滿洲里)역에 도착했을 때 중국 측에서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성광주(盛光祖) 국무원 철도부장 등이 영접한 점으로 미뤄 이들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됨.
 - 김 위원장은 방중 첫날 만저우리역 도착후 잠시 정치하고서 곧바로 200여km 떨어진 후룬베이얼(呼倫貝爾)로 내달려, 김 위원장은 그 도시의 텐차오(天橋) 빈관에서 후춘화(胡春華) 네이명구 당서기가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했음.
 - 후 서기는 중국의 유력한 6세대 국가지도자로 주목받는 인물임. 김 위원장은 연회 참석 후 다시 특별열차 편으로 후룬베이얼을 출발해 26일 오전 치치하얼에 도착했음.
 -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는 인민무력부장 김영춘, 내각 부총리 강석주,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장성택, 노동당 중앙서기 태종수, 박도춘, 김영일, 김양건, 중국주재 북한대사 지재룡 등이 수행했음.
- <김정일 사흘간 방중 의미는>(8/27)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에 이어 사흘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27일 오후 5시경 압록강 중류의 지안(集安)을 거쳐 만포로 귀국했음. 김 위원장의 방중은 동선으로 볼 때 귀로 단축을 위한 민주별판 가로질러 가기 성격이 강해 보이지만 내용으로 볼 때 대내외에 여러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적' 행보라는 분석임.



- 우선 김 위원장은 특별열차 편으로 러시아에서 접경인 중국 내이명구(內蒙古) 만저우리(滿洲里)로 진입해 후룬베이얼(呼倫貝爾)을 거쳐 치치하얼(齊齊哈爾)-다칭(大慶)-하얼빈(哈爾濱)-지린(吉林)-통화(通化)-지안(集安) 노선이라는 최단거리로 귀국했다는 점에서 귀국 경로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 보임. 김 위원장의 건강을 고려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얘기임.
- 이로써 김 위원장은 러시아 방문 길을 역행해 귀국하는 것과 비교할 때 적어도 동선을 1천500km가량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라는 지적임. 김 위원장이 방중 기간에 여러 곳의 산업시설을 시찰하고 다이빙귀(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포함한 중국 고위층을 접견한 데서 그런 분위기가 읽힘. 이전 방중 때와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은 경제 챙기기 행보에 주력했고 북핵 6자회담 재개 의지를 강조한 점이 눈에 띄.
- 김 위원장은 치치하얼에서 제2공작기계그룹(集團)과 명뉴(蒙牛)유업을 돌아보고 다칭(大慶)에서 도시계획 전시관과 주택 건설현장을 둘러봄으로써 대내외에 경제살리기에 나선 최고지도자의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듯했음. 관심은 경제에 있다는 제스처였다는 지적임.
- 다시 말해 이는 러시아 방문에서 극동지역 최대 수력 발전소인 '부레이 발전소'를 방문하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러시아-북한-한국 3국간 가스관 건설에 동의하는 등 에너지 관심 행보에 이은 '경제 챙기기' 행보로 보임.
- 이 뿐만이 아님. 김 위원장은 중국의 외교사령탑인 다이빙귀 국무위원을 26일 치치하얼에서 접견하고서 북·러 정상회담을 설명했다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자리를 통해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의지를 다시 '광고'했음.
- 사실 김 위원장은 이번 러시아 방문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 회복을 노리는 러시아로부터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고, 그 내용이 중국에 대한 '디브리핑(사후설명)'의 골자였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조건적인 6자회담 재개를 강조해온 김 위원장은 이번에도 이를 되풀이함으로써 한·미·일 3국을 압박하려 했다는 분석임. 북중 매체들은 김정일·다이빙귀 회동 후 약속이나 한 듯이 "김 위원장이 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 이는 한·미·일 3국이 핵과 미사일 생산과 실험 중단, 우라늄 농축 핵 프로그램(UEP) 사찰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북한 복귀 등을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을 겨냥한 '공세'로 비침.
- 주목할 대목은 중국 역시 내심 북한의 무조건적인 6자회담 재개 입장을 지지하지만,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조정' 역할을 해야 하고 자칫 '한·미·일 vs 북·중·러' 대립구도로 비칠 것을 우려한 탓에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임.
-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는 '중국 달래기' 의도도 담고 있다



- 고 지적하고 있음. 사실 최근 몇 년 새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급속하게 강화되는 속에서 이뤄진 김정일 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등거리 외교'로 비친다는 점에서 중국이 달가워할 까닭이 없고, 김 위원장의 다이빙귀 접견은 이런 상황을 감안한 액션이라는 얘기도 나옴.
- 실제 지난 2000~2002년 김 위원장과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양,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며 우의를 다졌지만, 그 이후 러시아의 국력 약화와 한국·러시아 관계 강화 등으로 소원했었음. 그러다가 러시아는 이번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확대한 점이 눈에 띈.
 - 또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귀로 단축을 위한 '경유'에 무게를 뒀다고 해도 이전 방중과는 달리 중국 수뇌부와의 회동이 이뤄지지 않은 채 국무위원급을 접견한 데 그친 것에 대해 신경 쓴 기색도 엿보임.
 -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새벽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 동지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특별위임에 따라 헤이룽장성으로 온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위원 다이빙귀 동지가 친절히 맞이했다"고 한데서 그런 분위기가 묻어남.
 - 이와 함께 북한과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 대해 동선과 일정을 '적극' 보도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임.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그동안 관례를 깨고 김 위원장의 방중 직후 "동북지방을 경유 겸 순방한다"고 방중 사실을 보도했는가 하면 여러 차례 김 위원장의 일정과 행선지를 적절한 선에서 전했다. 북한 역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수차례 김 위원장의 방중 내용과 성과를 전했다. '홍보'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음.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 방중 보도에 대해 이처럼 북중 매체들이 '진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대내외에 최대한 '노출'을 의도한 것이 특징"이라며 "강성대국 원년(2012년)을 앞두고 대내외에 한반도 문제 해결과 경제개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려는 의도가 명백했다"고 밝혔음.

라. 일·북 관계

● "일본 여당 내 대북 제재 회의론"〈교도〉(8/25)

- 일본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를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외교·안전보장조사회는 이날 국회에서 북한 분과 모임을 열고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는 한정적"이라며 일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보고안을 빠르면 25일 확대정책 임원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음.
- 민주당 외교·안전보장조사회가 마련한 보고안은 대북 경제제재가 ▲ 별로 효과가 없었고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음. "제재 이외의 수단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노력이 충분



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 한미일 3국의 대북 연계에 대해 "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시하는 미국, 한국과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있는 일본 사이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적은 뒤 북한이 이같은 틈을 노려 한미일 3국을 이간질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음.
- 이 밖에도 납치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면 "해결됐다"고 인정할지 논의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마. 러·북 관계

● "러, 내달 라진항 3호부두 개조 착수"(8/22)

-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사용권을 확보한 라진항 3호 부두의 개조공사를 이르면 내달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연길(延吉)의 한 소식통은 22일 "러시아가 라진항 3호 부두와 라진역-라진항 인입 철도 보수 공사에 착수하기로 북한과 최근 합의했다"며 "이르면 내달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 최근 라선을 다녀온 이 소식통은 북한 라선시 항만국 관계자를 인용 "부두 개조 공사는 일제시대 건설돼 파손됐거나 노후화된 항만을 정비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전체 부두 520m 구간 가운데 우선 260m를 정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러시아는 또 라진역에서 라진항으로 연결되는 3.8km 구간의 철도 인입선 보수 공사도 함께 착수할 계획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 구간은 북한의 표준 궤도와 러시아가 사용하는 광역 궤도가 함께 설치돼 있으며 러시아는 2개 철로를 모두 보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 보수 비용은 전액 러시아 철도공사가 부담하게 됨.
- 러시아는 앞서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 사업의 첫 단계로 추진 중인 하산-라진 구간 철도 현대화(개보수) 작업에 이미 착수했음. 한국교통연구원은 21일 러시아 당국 등의 발표 등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 하산-라진 간 52km 철도 구간 가운데 12.8km 구간의 개보수가 마무리됐고 현재 두만강역, 웅상역 등 8개 철도역에서 개보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하산-라진 구간 보수에 이어 라진역-라진항 인입선 철도와 3호 부두 개조가 마무리되면 러시아는 하산에서 라진항을 통해 해상으로 진출할 길이 열리게 됨. 겨울 4개월간 바다가 어는 극동 자루비노항을 보완하기 위해 러시아는 중국이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확보하기 1년 전인 2008년 3호 부두의 49년 사용권을 확보했음.
- 그러나 중국이 1호 부두 정비를 끝내고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훈춘의 석탄을 남방지역으로 시범 운송하는 등 부두 가동에 적극적인 것과는 달리 러시아는 정비 작업에조차 나서지 않아 북한의 불만을 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은 3호 부두 가동을 계속 늦출 경우 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러



시아를 압박해온 것으로 전해졌음. 러시아도 중국이 1호 부두의 시험 운항에 이어 라선특구 공동개발에 나서는 등 라선 진출에 적극적인 데 자극받아 중국 견제 차원에서 3호 부두 정비에 뛰어든 것으로 대북 전문가들은 분석했음.

- 대북 전문가들은 그러나 하산-라진 철도 개보수에 시간이 걸리고 당장은 라진항을 이용할 러시아 물자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3호 부두의 본격적인 가동은 빨라도 내년이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음.
- 북·러 양국은 2008년 4월 라진-하산 철로 개보수와 라진항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및 이용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 기간 라진-하산의 철로 개보수를 비롯한 TSR-TKR 연결 사업이 북·러 간 경제협력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김정일 방러> 북러 '관계 복원' 시동거나(8/22)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 회담을 앞두고 있어 북러관계가 옛 혈맹관계를 복원할 수 있을지 주목됨. 사실 대(對)러시아 외교는 북한 정권의 수립부터 북한 외교의 중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8·15 광복 이후 남북한을 미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신탁통치를 해온 만큼 남북한의 정치세력이 미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음. 이처럼 가까웠던 북한의 대리관계는 1956년 소련공산당 제 20차대회에서 흐루쇼프가 벌인 스탈린 격하운동과 1960년대 초 중소분쟁을 계기로 틈이 벌어지게 됐음.
- 그러나 1964년 흐루쇼프 실각, 1965년 베트남전 확대와 중국의 문화혁명 등 국제정세가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북한은 1965년 2월 소련 코시긴 수상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친러 입장을 견지했음.
- 이후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북러관계가 멀어진 결정적 계기는 글라스노스트(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개혁)로 대표되는 옛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과 1990년 전격적으로 이뤄진 한소 국교정상화였음.
- 당시 북한은 러시아에 대해 '배신행위' '사회주의 대국으로서 존엄과 체면, 동맹국의 이익과 신의를 팔아먹은 행위' 등 격렬한 문구를 동원해 맹비난했음. 특히 러시아가 1995년 자동군사개입조항이 포함된 '북·러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하면서 북러관계는 혈맹에서 일반국가 간의 관계로 격하됐음.
- 이후 사실상 일반적 관계를 유지한 북러관계는 2000년 7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평양방문과 2001년 7월 김정일 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을 계기로 또 다른 전환점을 맞게 됨. 2000년 북러공동선언과 2001년 모스크바 공동선언을 통해 과거 혈맹관계의 복원까지는 아니지만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음. 이 같은 합의에도 북러 양국은 소원한 관계를 완전히 떨치지지는 못했음.



- 이후 북러 간 철도연결사업이나 옛 소련에서 건설한 산업시설의 개보수 지원, 나진항 사용 등 북러 간에는 다양한 협력합의가 이뤄졌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기 때문임. 일각에서는 이런 양국 간 관계를 놓고 볼 때 이번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북러관계가 혈맹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친밀한 관계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음.
- 2000년과 2001년 형성된 북러관계가 북한의 일방적 필요에 따라 이뤄졌다면 이번 방문은 북러 양측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임. 북한은 2012년인 내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정하고 경제건설에 주력하고 있지만, 내부 자원이 부족하고 고갈된 만큼 러시아 등 외부의 지원이 절실함.
- 러시아 입장에서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동북아의 정세 안정이 필요함. 또 러시아는 APEC을 계기로 극동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국경을 맞댄 북한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임.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과거 동맹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어느 정도의 관계 복원은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러시아가 시베리아 개발을 위해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어 정상간 이뤄진 다양한 합의가 실천으로 이어지게 될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 "러, 北 김정은에 국제정보 교육 제안"(8/24)

- 러시아가 북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에 대한 국제 정보 교육을 위한 정보기관원 파견을 제안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4일 보도했음.
-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 정보 당국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간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교섭에서 김정은에게 국제 정세를 교육하기 위해 대외정보국(SVR) 요원을 파견하겠다고 제안했음.
- 신문은 "북한 측도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일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면서 "일국의 지도자 후보가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직접 국제 정세에 관한 정보제공을 받겠다는 것은 이례적이다"고 전했다.
- 신문은 이어 "북한이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일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은 국가지도자로서 경험이 없는 김정은을 조속히 국가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고 분석했음.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에 대한 국제 정보교육은 지난 5월 정상회담의 사전 조율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미하일 프라드코프 대외정보국(SVR) 국장이 제안했음.
- 이는 러시아가 북한의 차기 지도자와의 관계를 밀접히 하기 위한 포석으로 판단됨.



● <김정일 방러> 北매체 관심 中서 러시아로 이동(8/24)

- 북한 매체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기간에 맞춰 러시아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보도를 눈에 띄게 늘리고 북러 친선을 부쩍 강조하고 있음. 김 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앞둔 23일부터는 러시아 관련 보도가 중국에 관한 보도를 양과 질면에서 앞질렀음.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러시아가 대륙붕 등 지질탐사를 전문으로 하는 국영회사를 창설하고, 모스크바시가 못 쓰는 전구를 수집하는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등 러시아 관련 기사를 잇따라 내보냈음.
- 이들 기사는 지난 22일 모스크바발로 작성된 것으로, 북한이 24일 김 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의식해 타전한 것으로 보임. 앞서 노동신문은 전날 북러 양국관계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조로친선(북러친선)의 노래 영원히 울려가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음.
- 신문은 이 기사에서 김 위원장의 방러에 대해 "조로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김 위원장의 러시아 아무르주(州) 방문 소식과 러시아 내무부 합주단의 방북을 비롯한 양국 간 예술교류를 소개했음.
- 같은 날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발전의 길에 들어선 원동'이라는 기사를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의 발전상을 조명했음. 신문은 "오늘 원동연방구는 수력자원과 수산자원, 지하자원이 풍부해 러시아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아무르강, 부레이 발전소 등을 소개하고 극동지역에 많은 현대적 도시가 건설됐다고 전했다.
- 북한 매체들의 러시아 관련 보도는 김 위원장이 방러에 나선 지난 20일부터 평소보다 배 정도로 늘었음. 북한은 평소 러시아보다는 중국 관련 보도를 비중 있게 다루었음.
- 북한이 이처럼 러시아 관련 보도를 늘린 것은 대(對) 러시아 관계 개선과 김 위원장의 방러 성과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됨.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와 친선관계를 과시하고 김 위원장에 대한 주민의 충성심을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음.

● 북-러 정상, 울란우데서 회담(8/24)

-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24일 오후 2시(이하 현지시각)부터 동부 시베리아 부랴티야 자치공화국 수도 울란우데 시 외곽에서 열렸음.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55분께 회담장인 울란우데 동남쪽 외곽 '소스노비 보르(소나무 숲)'의 제11공수타격여단 영내로 들어갔음.
- 이에 앞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오전 10시께 소스노비 보르에 먼저 도착해 김 위원장을 기다렸음. 김 위원장은 회담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멀리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여기도 우리나라의 한 부분"이라면서



"이웃, 동반자 문제를 얘기할 때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회답했음.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또 "이번 여정에서 보고 싶었던 것을 다 볼 수 있었기를 바란다"고 말하자 김 위원장은 "매우 즐거운 여정이었으며 보내주신 환대에 감사한다"고 말한 것으로 AFP 통신은 전했다.

- 북-러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와 경제협력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크렘린궁이 회담에 앞서 언론발표문을 통해 밝혔다. 크렘린궁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조기 재개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러시아는 남북 간 대화 및 협력 복원을 위해 평화적이고 정치·외교적인 해결방식을 한결같이 지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 이 밖에 김 위원장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북·러 교역 문제, 남·북·러 3각 경제 협력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크렘린궁은 덧붙였다.
- 이날 러-북 정상회담이 끝날 무렵인 오후 4시께 제11공수타격여단 상공서 10여명의 공수부대원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리는 장면이 목격됐음. 동시에 사격 소리도 함께 들렸음. 훈련 장면은 약 10분 동안 이어졌음. 김 위원장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공수부대원들의 낙하 시범을 관람한 것으로 추정됨.
- 김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울란우데 시내 관광을 마치고 점심을 먹은 뒤 회담장으로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먼저 오전 9시께 메르세데스 승용차를 타고 울란우데 시내 소비에트 광장에 있는 거대한 레닌 머리 동상을 찾아 머리를 숙였음. 레닌 머리 동상은 높이가 7m로 러시아에서 제일 큰 레닌 두상 조형물임.
- 뒤이어 시내를 관광하던 김 위원장은 중앙 체육관과 최근 건설된 드라마 극장, 박물관 등을 방문하고 대형상점인 '메가티탄'에도 들른 것으로 전해졌음.
- 한편 이날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침부터 울란우데 시내와 회담장인 소스노비 보르로 이어지는 도로 주변에는 10~200m 간격으로 경찰들이 배치돼 삼엄한 경비를 펼쳤음. 회담장으로 통하는 도로에서는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음.
- 김 위원장은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끝난 뒤 부랴티야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한 뒤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특별 열차가 귀로에 어떤 노선을 택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현지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중국을 거쳐 귀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음.

● 러시아 "北, 舊 소련에 110억弗 채무"(8/24)

- 러시아와 북한 양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진 약 110억 달러(약 11조9천억 원)의 채무 상환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세르게이 토르차 러시아 재무차관이 24일 밝혔다.
-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스트로차 차관은 이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열린 울란우데



- 에서 기자들에게 "110억 달러는 북한이 옛 소련에 진 채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당시 북한에 제공된 자금은 1달러당 60 코페이카(100분의 1루블)의 환율로 지급됐다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루블화 재계산 방법과 채무 지불 순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차관은 그러나 북한이 옛 소련에 대한 채무를 인정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우선 북한이 러시아를 소련의 승계국으로 인정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그는 "먼저 북한에 이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채무액 산정을 위한 계산법에 대한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러시아는 앞서 지난 2006년 옛 소련에 대한 북한의 채무액을 80억 달러로 산정했었음. 북한의 대(對) 러시아 채무가 이보다 훨씬 늘어난 것은 상환 지체에 따른 벌금 부과 때문이라고 러시아 언론 매체들은 설명했다.
 - 현지 언론은 러시아는 북한이 채무를 지고 있는 옛 소련의 승계국이라며 소련은 20세기 중반에 북한에 차관을 제공했었다고 상기시켰음. 언론은 차관 외에도 소련이 북한에 에너지 자원과 중공업 제품, 식량 등을 특혜 가격으로 제공했었다고 덧붙였다.
 - 이밖에 70여개에 달하는 북한 공장이 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됐다고 언론은 지적했음. 현재 옛 소련에 가장 큰 채무를 지고 있는 나라는 쿠바로 그 규모가 250~26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쿠바 정부는 소련이 쿠바와 급속히 경제관계를 단절하면서 러시아가 더 큰 손해를 쿠바 측에 입혔다며 채무 상환을 거부하고 있음.

● <김정일 방러> 두 정상 연설문서 방점 달랐다(8/25)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24일 방러 중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러 정상회담을 한 뒤 저녁에 김 위원장 일행을 연회에 초대했음. 연회에서는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차례로 짧은 연설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와 의의,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언급했음.
- 두 정상의 연설 내용을 살펴보면 러시아 측이 상대적으로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 몸이 단 모습을 보인 데 비해 북한은 북러 간 전통적 우호관계 복원에 무게를 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임.
-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오전 전한 북러 두 정상의 연회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 두 나라 인민은 유유한 두만강의 흐름과 더불어 친선의 역사와 전통을 끊임없이 이어왔다"며 "최근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좋게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 위원장은 "조러 친선의 역사와 전통을 계속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두 나라 인민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전통적인 조러 친선협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등 지속적으로 북러 간 전통적 우호관계의 복원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했다.
- 김 위원장에 비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업까지 거론하면서 북러간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강조했다.



- 음. 그는 "두 나라 사이의 협조를 실현하는 것은 두 나라 인민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결실을 포함해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며 "나와 김정일 각하는 정치적 대화를 계속하며 실무적인 협조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데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 특히 "교육문화분야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협조의 가능성이 있다"며 평양에서 운영 중인 러시아어센터, 러시아 예술단의 북한 순회공연, 북러 도시 간 자매결연 등 구체적인 사례까지 열거했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하부구조와 동력분야의 거대한 계획을 실현하는 데서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이 참가하는 협조는 커다란 전망을 가지고 있다"며 "이 협조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3개국에 다 같이 유익하다"고 역설했음.
 - 남북러 3국을 관통하는 가스관 및 송전선 연결사업과 북러 간 철도 연결을 통한 시베리아횡단철도(TSR)-한반도중단철도(TKR) 연결사업을 위한 3국간 협조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당시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도 가스관, 철도연결 사업을 언급하며 남북러 3국간 공동사업에 대한 북한의 협조·협력을 당부한 바 있음.
 - 이러한 북러 양국의 정상회담과 실무협의 내용 등을 놓고 볼 때 이번 김 위원장의 방러에서는 러시아 측이 더 적극성을 보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옴.
 - 24일 발표된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6자회담 재개 후 대량살상무기(WMD) 실험 잠정중단 등 핵문제 등에서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못 미쳤지만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이 되는 가스관 연결사업 등 경제협력 사업은 특별위원회 발족 등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됐음.
 - 이는 내년 9월로 예정된 블라디보스토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극동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러시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발표하는 언론보도문은 윤색 가능성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며 "하지만 러시아가 그동안 공을 들여온 나진항이 중국에 장기임대된 상황과 극동지역의 개발 등 여러 이유로 북한과 경제협력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 <러시아-북한, 정상회담 통해 얻은 것은?>(8/25)
- 24일 러-북 정상회담을 끝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5일간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튿날 중국 네이멍구의 만주리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을 거쳐 귀국하려는 것임.
 - 2002년 이후 9년 만에 이루어진 러-북 정상회담은 양국에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줬을까. 우선 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경우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명하고 이 사업의 기술적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모임인 '3국(남북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는 러시아



- 측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교착 상태에 빠졌던 가스관 사업이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 선화중 한국가스공사 모스크바 파견관은 2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는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 가스관 개통을 앞두고 이 가스관을 통해 수송될 천연가스의 해외 수출망 확보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며 "최근 남북한 양측과의 잇단 접촉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특별위원회 창설이라는 결과를 얻어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 그는 그러면서 "일단 북한이 특별위원회 창설에 합의한 이상 그동안 북한 경유 가스관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온 한국도 위원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며 "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3국 정부가 사업 추진에 본격 착수하면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가 실현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경제적 실리 외에도 가스관 프로젝트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남북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러시아는 보고 있음. 러시아는 이런 가스관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미국과 중국에 넘겨주다시피 한 한반도 외교의 주도권을 일정 부분 되찾아 보려는 계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김 위원장이 무조건적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회담 과정에서 핵물질 생산 및 핵실험을 잠정중단(모라토리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점도 러시아의 외교적 성과로 해석될 수 있음.
 -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 측이 요구한 대로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당장 핵 프로그램 폐기를 선언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6자회담 '결과'로서가 아니라 회담 '과정'에서 핵 문제 관련된 양보를 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임.
 - 이는 핵 프로그램이 순수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것이라며 한·미 양측의 핵 폐기 요구를 완강히 거부해 오던 기존 태도에서 한 발짝 물러나 협상의 여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됨.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양보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러시아의 체면을 살려준 것임.
 - 이 같은 구체적 성과 외에 러시아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사태 해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가 있고 그럴 능력도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 성과도 얻었음. 한동안 등한시했던 한반도 외교로의 복귀 선언인 셈임.
 - 북한 입장에서도 나름의 실익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중국 일본도의 경제·외교 관계에서 벗어나 한반도 주변 4강의 하나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상당 정도 복원시켰기 때문임.
 - 러시아 측은 김 위원장의 방러 기간 동안 자국 주민들의 불편을 무시하고 김 위원장 이동 구간의 차량통행을 전면 차단하고 방문 지역 인근 도로에 10~200m 간격으로 경찰을 배치하는 등 경호에 각별한 신경을 썼음. 다른 외국 정상들의 러시아 방문 때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북측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로 보임.

-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유례없이 따뜻하게 김 위원장을 맞고 접대했음. 2시간여에 걸친 정상회담과 뒤이은 만찬 등을 포함해 무려 4시간 30분을 김 위원장과 함께 보냈음. 향후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전통 우방인 중국은 물론 러시아에도 기댈 수 있는 '정서적' 기반을 단단히 한 것임.
- 여기에 겹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에너지나 추가 식량 지원 등을 약속하고 대북 투자를 늘리는 등의 이면 합의를 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음.

● 북-러 제5차 경제협력 의정서 체결(8/26)

- 북한과 러시아 정부 대표단이 26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의 제5차 회의 의정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의 북측 위원장인 리용남 무역상과 러시아측 위원장인 빅토르 바사르긴 러시아 지역발전상이 의정서에 서명했음. 중앙통신은 그러나 의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음.
- 의정서에는 지난 24일 러시아 울란우데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협의된 러시아와 남북한 등 3개국 간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철도 연결 문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관측됨.
- 북러 경제협력위 회의가 열린 것은 2007년 3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4차 회의 이후 4년5개월 만임. 최영림 북한 내각총리는 이날 만수대의사당에서 바사르긴 지역발전상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정부 경제대표단을 만났음.

● "김정일, 남한行 가스관 北통과 허용"(8/26)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한국 수출을 위한 가스관이 북한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허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빅토르 이사예프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26일 밝혔음.
- 이사예프 전권대표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지시로 20일부터 닷새 동안 이어진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기간에 특별열차를 함께 타고 끝까지 그를 수행했던 인물.
-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전권대표부가 있는 극동 하바롭스크에서 현지 기자들과 한 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만일 러시아와 남한이 천연가스 공급과 관련한 협정에 서명하면 북한은 가스 수송관 건설을 위해 영토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그는 "북한은 그러나 러시아에서 남한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건설하기 위한 컨소시엄에는 참가할 계획이 없으며, 가스 통과와 영토 임대에 따른 수익만을 챙기려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사예프는 건설 시기와 관련, "지금 구체적 시기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며 "(한-러 간 논의 규모인) 연간 약 100억 m³의 가스를 (한국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할린섬의 '사할린-3' 가스전과 야쿠티야 공화국의



- 가스전과 같은 새로운 가스전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설령 남북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시베리아·극동 지역의 가스전 개발 속도에 따라 가스관 건설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임.
 - 김 위원장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앞서 24일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 도시 울란우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한국 수출용 가스관 건설 문제를 검토할 3국(남북러) 전문가들의 모임인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고 크렘린 공보실이 발표한 바 있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정상회담 뒤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의 알렉세이 밀레르 사장에게 남북러 3국이 참여하는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었음.
 - 러시아와 한국은 북한을 경유해 한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건설해 2015~2017년부터 연간 100억 m³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들여오는 프로젝트를 논의 중임.
 - 이샤예프 전권대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또 방러 기간 동안 러-북 간 농업분야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론하면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농지를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노동자들을 투입해 러시아 땅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뒤 북한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음.
 - 이샤예프는 김 위원장과 러시아 국경도시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2km 철도 구간 보수 공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현재 러시아 철도당국이 추진하는 보수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 10월이면 공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그러면서 "9월이면 벌써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공급되는 식량이 하산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김 위원장은 또 방러 기간 중 극동 지역에 북한 맥주공장을 설립하는 방안과 러시아 주요 도시에 북한 음식점을 열어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이샤예프 전권대표는 전했다. 이샤예프는 "우리는 이미 러시아 맥주회사인 발타카를 갖고 있고, 중국과 일본 및 독일 맥주도 마시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 맥주를 추가하는데 누가 반대 하겠느냐"며 김 위원장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 이샤예프는 이어 김 위원장이 회색과 베이지색으로 된 실내를 갖춘 특별열차 내에서도 계속 업무를 볼 정도로 열심이었다면서 "그와의 대화는 매우 유쾌했다"고 수행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경제·환경 등 어떤 주제로라도 건설적 대화를 할 수 있었다고 좋게 평했음.
 - 그는 "김 위원장이 에너지 분야의 기술·경제적 문제들을 환희 꿰뚫고 있었다"며 "특히 아무르주의 부레이 발전소를 방문했을 때 발전기의 용량과 발전 원가 등을 비롯한 문제들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 김 위원장은 또 러시아가 관광휴양지로 개발 중인 바이칼 호수 인근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개발 현황과 공사 완공 시기, 투자비 회수 가능성, 정부 대 민간 자본 투자 비율 등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으며, 울란우데의 항공기 제작 공장을 방문했을 때도 전문가 수준의 항공 지식을 보여



줬다고 이사에프는 놀라워했음.

- 그는 이어 "김 위원장은 악수를 할 때는 매우 힘 있고, 강하게 했다"며 승용차에 타고 내릴 때 부축을 받는 김 위원장의 TV화면 이미지와는 달랐다고 전했다.

바. 기 타

● "세계식량계획, 원산서 대북사업 점검"(8/24)

- 세계식량계획(WFP)이 지난 21일 북한 강원도 원산에서 회의를 열고 수해 복구와 식량지원 등 대북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WFP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음.
- WFP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함경남도 함흥의 식품공장에서 생산하는 새로운 혼합식품의 분배 상황을 점검했음. 이 혼합식품은 옥수수과 콩으로 만든 기존 식품에 비타민을 첨가한 것임.
- 회의에는 WFP 본부와 평양, 중국 측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북한 당국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WFP는 지난 4월부터 양강도와 함경도, 평안남도, 황해도, 강원도의 어린이와 임산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긴급 식량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또 WFP는 이달 초 북한의 감자와 겨울 밀 등 봄철 작황 내역을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에 보고했다고 RFA가 소개했음.
- 북한의 봄철 작황은 지난해 가을 국제기구가 예상한 수치에서 30% 감소한 40만t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 "프랑스, 北에 14만 달러 식량 추가지원"(8/25)

- 프랑스 외무부가 북한의 식량 지원을 위해 14만 달러를 추가로 기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했음. 방송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프랑스의 구호단체인 '프리미어 어전스' 관계자를 인용, 프랑스 정부가 지원하는 식량이 9월 초부터 함경도와 황해북도 내 학생 2천850명과 교사 726명에게 분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 프리미어 어전스는 고아와 장애인에게 쌀, 옥수수, 콩, 콩기름 등 3개월 치 식량을 지원할 계획임.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평안남도와 황해남도의 고아와 장애인 1천600명에게 21만 달러 상당의 식량을 나눠준 바 있음.

● <남-북-러 철도연결..정부 "일단 지켜봐야">(8/25)

-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 사업이 다시 한번 눈길을 끌고 있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24일 러시아 올란우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철도 등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임.
- 조선중앙통신은 두 정상이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와 철도를 연결하는 문제 등 경제협조 관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시킬 데 대한 일련의 의제



- 들이 상정돼 공동인식이 이룩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무그룹들을 조직 운영하며 이 방향에서 계속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25일 전했다.
-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이 최우선 의제로 다뤄지긴 했지만 철도 연결 사업에도 양국 정상이 관심을 할애한 만큼 오랫동안 논의가 중단됐던 TSR과 TKR 연결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임.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전혀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정부의 한 관계자는 "3국 간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서는 2006년 이래 논의가 전면 중단된 상황"이라며 "남북 관계가 선행돼야 이 문제를 재협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남-북-러 철도 연결 문제는 이철 코레일 사장 등 남북한과 러시아 3국의 철도 책임자가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회의를 갖고 TKR-TSR 연결에 공동 협력하기로 한 2006년 3월 이후 뚜렷한 진전이 없다가 남북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관련 논의가 전면 중단됐음.
 - 이 관계자는 "북한이나 러시아에서 먼저 접촉해오면 몰라도 우리가 먼저 나설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최근 방한했던 러시아 철도 고위 관리가 북한과의 협의가 진전되면 진행 사항을 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러시아 측에서 곧 상황 설명을 해올 것으로 예상했음.
 - 알렉산더 살타노프 러시아철도공사 부사장은 지난 17일 허준영 코레일 사장을 방문해 한-러간 철도협력과 TKR-TSR 추진계획, 남-북-러 철도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
 - 한편 남-북-러 철도 연결 사업이 탄력을 받으려면 일단 러시아와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나진-하산 간 52km 철로 연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게 선결 조건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음.
 - 러시아와 북한은 2008년부터 나진항으로 들어오는 동북아 지역의 화물을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운송해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운송하기 위한 나진-하산 간 52km 철로 보수 공사를 진행 중임.
 - 나진-하산 간 철로 보수가 완료된 이후 나진항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물동량 확보 차원에서 한국의 참여가 절실해지게 되므로 러시아와 북한 내에서 TSR과 TKR 연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관측됨.

2. 주변국 관련

가. 한·중 관계

● 경기도-장쑤성 우호협력도시 협약(8/26)

- 중국을 방문 중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6일 장쑤성 난징시 금릉호텔에서 리쉐용 장쑤성장과 '경기도-장쑤성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음. 장쑤성은 경기도의 26번째 우호협력도시가 됐다. 중국 내에서는 광



- 동성, 랴오닝성, 산둥성, 허베이성, 톈진시에 이어 6번째임.
- 양측은 양해각서에 따라 경기도 경제투자실과 장쑤성인민정부 외사판공실을 창구로 삼아 경제, 과학기술, 문화, 교육, 인재, 환경보호, 관광 등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기로 했음.
- 김 지사는 "황해를 둘러싼 경기도와 장쑤성 간의 발전은 물론 동아시아의 발전과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음. 장쑤성은 인구 7천866만 명으로 약 4만 명의 한국 교민이 거주하고 있음.

나. 한·일 관계

● 日 영토 의원연맹, 독도 국제재판소 회부 요구(8/23)

- 초당파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일본의 영토 관련 의원연맹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음.
- 2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초당파 의원으로 구성된 '일본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회장 아미타니 에리코 자민당 참의원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총회를 열고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음.
- 총회에서는 최근 독도를 방문했던 보도 사진가인 아마모토 고이치(山本皓一)씨가 참석해 자신이 최근 촬영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 강화 실태 사진을 보여주고 설명도 곁들였음.
- 회장인 아미타니 의원은 울릉도에 있는 독도박물관의 오류를 수정하도록 외무성을 통해 한국 정부에 요구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음.

● 한·일 경제정책협의회 26일 개최(8/25)

-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오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8차 경제정책협의회를 갖는다고 기획재정부가 25일 밝혔음.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과 히로유키 이노우에 일본 내각부 경제·재정운용심의관이 각각 대표로 참석함. 양측은 협의회에서 글로벌 재정위기와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 특히 이 자리에서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이어 무디스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것의 의미와 파장, 글로벌 재정위기의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회의에서는 양국의 성장잠재력과 인구구조 변화, 소득격차 문제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구조적 경제정책과제들도 중점 논의과제로 다뤄질 예정임.
- 한·일 경제정책협의회는 기획재정부와 일본 내각부 경제정책 담당자들 간의 정책교류와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지난 1987년부터 연례적으로 열리는 국장급 회의체임.



다. 한·러 관계

● 한·러 원자력 협력 방안 논의(8/22)

- 교육과학기술부는 러시아 원자력공사(Rosatom)와 함께 23일부터 24일 까지 서울에서 '제15차 한·러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양국 합의 사항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원자로·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핵융합 등 17개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임.
- 구체적으로 의료용·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액체금속로·일체형 원자로·금속핵연료 개발을 위한 기술 협력과 방사선안전·원자로 중대 사고 실험 등 안전규제 분야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임.
- 특히 두 나라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 참여국으로서, 중수소 핵융합반응 플라즈마의 고속중성자 진단 연구를 신규 의제로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라. 미·중 관계

● "美, 말보다 실천할 때"〈신화〉(8/22)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미국 내 중국 자산의 안전을 강조한 조 바이든 부통령의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미국이 말보다 실천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 신화통신은 22일 '미국은 중국과 세계를 안심시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국이 해외 부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경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신화통신은 "바이든 부통령이 중국에 있는 동안 여러 차례 달러 자산의 안전을 강조했다지만 중국과 세계의 걱정을 불식시키기에는 아직 한참 부족하다"며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은 신뢰란 수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실천에서 나온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신화통신은 미국 정치권에서 부채 상환 협상이 진행되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한 지난 3개월 연속 중국은 미국 국채를 연속해 매입함으로써 세계 2위 경제국으로서 세계 경제 안정을 위해 책임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 통신은 미국이 중국의 신뢰를 얻으려면 첨단기술 상품에 대한 수출 제한을 풀고 중국 자본의 미국 내 투자 장벽도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음.
- 아울러 신화통신은 미국은 중국의 독자적인 발전 노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국가주권과 영토 보전 등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등 지도자들이 바이든 부통령을 잇따라 만나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의 메시지를 던지며 양국의 협력을 강조한 가운데 나온 관영



통신의 비판적인 논평은 미국에 대한 중국의 솔직한 속마음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임.

● 바이든 美부통령 방중 종료(8/22)

-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엿새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22일 오전 전용기로 차기 행선지인 몽골로 향했음. 바이든 부통령은 21일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소재 쓰촨대에서의 연설과 2008년 쓰촨 대지진의 피해현장 가운데 하나인 두장옌(都江堰) 방문을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을 종료했음. 두장옌에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함께 칭칭산고교를 찾아 학생들을 격려했음.
- 그의 이번 방중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미 국채 하락 사태는 물론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인권 문제 등으로 양국이 적지 않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뤄져 관심을 끌었음.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이날 "미국 언론매체들은 바이든 부통령이 중국에 더 강경하게 대하라고 주문했지만 방중 엿새간 중미 간 분위기는 조화로웠다"고 평가했음.
- 바이든 부통령의 이번 방중 기간에 중국의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시되는 시 부주석이 내내 동행하고 두 차례 회담을 가져 눈길을 끌었음. 그는 베이징 일정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중국 수뇌부와 회동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음.
- 바이든 부통령은 원 총리와의 회견에서 미 달러화 채권과 중국의 대미 투자 안전을 보장하겠다면서 중국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데 주력했음. 아울러 후 주석과의 회견에서도 "강대하고 번영한 중국이 국제 문제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에 긍정적인 일"이라며 "미국은 상호존중의 기초 위에서 양국이 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 바란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음.
- 그의 이런 발언은 일각의 '중국 위협론'을 부정해 중국의 환심을 사면서, 실질적인 'G2(주요 2개국)'로서 중국의 책임론을 부각시킨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음.
- 바이든 부통령은 특히 쓰촨대 연설을 통해 "북한과 이란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미국 등에 심각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미중 양국이 이를 해결하는데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음.
- 그는 아울러 이 연설에서 미국이 태평양 국가라는 점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음. 그는 "미국은 미래에 태평양 국가로 남을 것이고, 그런 미국이 지역안보는 물론 중국이 경제발전에 주력토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중 양국이 더 협력하면 양국에도 더 많은 이득이 돌아올 것이고 세계도 혜택을 볼 것"이라고 역설했음.
- 영국의 BBC는 21일 익명의 미 관리를 인용해 바이든 부통령의 방중 기간에 10억 달러 규모의 경협이 체결됐다고 전했다. BBC는 그러나 미국



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대만에 신형 F-16 C/D 전투기 66대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中, 美 국방부 군비확장 지적에 '발끈'(8/26)

- 중국의 군 현대화가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위협하고 있다는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대해 중국이 '과장되고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정면 반박했음.
- 이 같은 신경전은 대만 무기 판매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양국이 조 바이든 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화해 무드'를 조성한 직후 벌어진 일임.
- 중국 국방부는 26일 양위진(楊宇軍)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 국방부가 지난 24일(미국시간) 발표한 보고서와 관련, 중국이 강력한 불만과 확고한 항의 의사를 표한다고 밝혔음.
- 국방부는 특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중국이 다른 나라들처럼 군을 발전시키고 무기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 보고서가 사실을 중대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 또한 보고서가 소위 '대만에 대한 중국 본토의 위협'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으며, 중국의 인터넷 보안 정책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 등도 오히려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 답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측을 비판했음.
- 앞서 미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력 실태에 관한 86쪽 분량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대만과 중국의 분쟁 및 중국발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 문제 등을 언급했으며, 특히 중국이 스텔스 전투기와 항공모함 개발을 추진해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해치고 있다고 분석했음.

마. 미·일 관계

● 美 부통령 "美·日, 여전히 강대국"(8/23)

- 일본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23일 미국과 일본이 각각 부채 위기와 대지진 피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두 나라가 더는 제 강대국이 아니라는 일부 평가는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 중국 방문을 마치고 몽골을 거쳐 일본에 도착한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와 만나 일본의 대지진 극복 노력에 찬사를 보내면서 미국과 일본 양국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는 사람도 있으나 "이들은 잘못된 쪽에 베풀어주는 꼴"이라고 꼬집고 두 나라는 견제하다고 강조했다.
- 간 총리는 바이든 부통령에게 대지진 재건에 미국이 보내준 지원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일본의 경제와 관광산업이 정상을 되찾았다는 확신을 심어주고자 노력했음.



- 간 총리는 그러면서 바이든 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이 "전 세계에 일본이 비즈니스에 개방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日, 미국과 주일 미군 재판권 포기 밀약"(8/26)

- 일본 정부가 1953년 주일 미군에 대해 중요 사건 범죄 외에는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미국 측과 밀약한 사실이 드러났음.
- 마쓰모토 다케이키(松本剛明) 외무상은 26일 지난 1953년 미일 행정협정 개정 직전 교섭에서 양국 정부가 주일 미군의 재판권 포기에 관해 협의한 비밀문서를 공개했음.
- 이에 따르면 일본 측의 발언 초안에는 "(주일 미군의 공무외 범죄와 관련)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사건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제1차적 권리를 행사할 의도가 없다"고 기술돼 있음.
- 이는 일본이 재판관할권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기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미국에 밝힌 것임. 당시 관련 문서에는 실무 담당자인 일본 법무성 총무과장이 서명했으며, 미국은 이 문서를 보관했으나 일본 측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번에 이 비밀문서를 미국 측으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했음. 일본 정부가 주일 미군에 대한 재판권을 포기한다는 방침을 시사했다는 것은 2008년 공개된 미국 정부 공문서에서도 밝혀진 바 있음.
-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당시 "미국과 (재판권 포기에 대해) 합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었음. 마쓰모토 외무상은 이와 관련 "일미 간 (공식)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에 공개한 비밀문서가) 밀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코멘트하기 어렵다"고 분명한 답변을 피했음.
- 한편 일본과 미국 정부는 25일 열린 합동위원회에서 이번에 공개된 문서와 관련 "일본 측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일방적 발언으로 미국과 일본이 (일본의 재판권 포기에) 합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음.

바. 중·일 관계

● "中, 日 방위상 9월 중국 방문 초청"(8/23)

- 중국이 다음 달 일본 방위상의 중국 방문을 타진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은 최근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에게 다음달 20일 전후 중국에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음.
- 중국과 일본은 이달 하순 중국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 예정이었으나 일본의 정기국회가 8월말까지 연장되는 바람에 일정이 연기됐음. 하지만 일본에서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퇴진으로 다음 달 새 내각이



출범할 예정이어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함.

- 국방장관 회담이 열릴 경우 양국은 동중국해에서 중국 해양활동이 활발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발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연락체제 구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 "신도 등 日 국회의원, 센카쿠 상륙 검토"(8/24)

- 일본 중의원 국회의원들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열도 상륙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4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따르면 울릉도를 방문하려다 입국이 저지된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자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중의원 결산행정감시위원회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尖閣: 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에 상륙해 실효 지배 실태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중의원 결산행정감시위원회는 23일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 측으로부터 센카쿠열도 경비 실태를 청취했음.
- 신문은 "여당은 신중한 자세이지만 의원들의 센카쿠 상륙이 실현되면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 신도 의원은 반드시 센카쿠에 상륙해 시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합의할 경우 다음 달 중 상륙이 시도될 것으로 보임. 일본 정부는 센카쿠를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마찰과 센카쿠 문제의 국제분쟁화를 피하기 위해 자국민의 상륙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日, 센카쿠 주변 中어업지도선 출몰에 '발끈'(8/24)

-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다투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에 중국 어업지도선이 나타나자 일본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음.
- 2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5분께 동중국해 센카쿠열도 중 구바지마(久場島, 중국명 황웨이위<黃尾嶼>) 북북동쪽 30~33km 해역에 중국 어업지도선 2척 '위정(漁政) 31001'호와 '위정 201'호가 나타난 것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발견했음.
- 일본측은 중국 어업지도선이 센카쿠열도 접속수역(영해에서 12해리) 뿐만 아니라 이날 오전 6시36분께부터 오전 7시13분께까지 30분간 영해(해변에서 12해리)에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 위정 20호는 오전 7시41분께부터 7분간 일본 측이 주장하는 영해에 다시 한 번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이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 주변 영해에 중국 어업지도선이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일본 순시선이 무선으로 '영해에서 나가라'라고 경고하자 중국 어업지도선은 '다오위다오와 주변 열도는 중국의 고유 영토다. 중국 해역에서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있다'고 되받았음.
- 일본은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정보연락실을 설치했고,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郎) 외무성 사무차관은 청융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



를 의무성으로 불러 항의했음.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은) 일중(중일) 관계를 전체적으로 고려해 적절하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중국 측의 자제를 요구했음.

사. 일·러 관계

● 러, 쿠나시르섬 무단 도항 일본인 구속(8/22)

-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중 하나인 쿠나시르섬(일본명 구나시리섬(國候島))에 무단 도항한 일본인 남성이 러시아 당국에 구속됐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음.
- 구리아마 게이스케(37)라는 이 남성은 21일 비자 없이 고무보트를 타고 쿠나시르섬에 상륙하려고 했다가 러시아 국경경비대에 붙들렸고, 22일 섬의 중심지인 유즈노쿠릴스크에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은 22일 러시아측의 연락을 받은 뒤 구리아마씨의 조기 석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노 유타카(伴野豊) 일본 외무성 부대신은 기자회견에서 "북방영토에서 일본인을 구속한 것은 영토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법적 입장과 다르다는 점에서 유감이다"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